

2018학년도 수시 논술 모의고사

논술고사 문제지 (인문계열Ⅱ)

소속고교		수험번호		성명	
------	--	------	--	----	--

◆ 유의사항 ◆

1. 시험 시간은 100분임.
2. 답안은 답안지의 해당 문항 번호에 검은색 펜이나 연필로 작성할 것.
3. 학교명, 성명 등 자신의 신상에 관련된 사항을 답안에는 드러내지 말 것.
4. 연습은 문제지 여백을 이용할 것.
5. 답안지 분량은 문항별 답안 길이에 맞추어져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문항 답안지에만 작성할 것.

감독확인



이화여자대학교

[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사람들이 공평한 합의를 위해 ‘무지의 베일’을 쓰면 자신의 사회적 지위나 능력, 재능, 가치관 등을 모르게 된다. 이러한 상태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정의의 원칙을 선택하게 되는데, 이때 그들은 최소 수혜자, 즉 ‘가장 불리한 처지에 있는 사람’의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할 것이다. 왜냐하면, 무지의 베일을 쓴 사람은 자신이 최소 수혜자가 될 수도 있기에, 그러한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려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정의의 원칙에 합의하게 된다.

제1원칙 각 개인은 기본적 자유에 있어 평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평등한 자유의 원칙).

제2원칙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은 다음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될 때 허용된다. 먼저, 그 불평등이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을 보장하고(차등의 원칙), 다음으로 불평등의 계기가 되는 직책이나 지위는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에 따라 모든 사람에게 개방되어야 한다(기회균등의 원칙).

롤스가 정의의 원칙을 제1원칙과 제2원칙으로 구분한 것은, 제2원칙은 어떤 경우에도 제1원칙보다 우선할 수 없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의 공정으로서의 정의의 입장은 자유주의적 전통을 존중하면서도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을 최소화하려는 평등주의적 자유주의를 취한다고 볼 수 있다.

롤스는 사회 구성원들의 이익 총량을 극대화하기보다는 최소 수혜자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우선적인 관심을 둬으로써 실질적 평등을 도모하였다. 그러나 그가 제시한 정의의 제2원칙은 어떤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이 도덕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지를 따져야 함을 시사한다. 사회에서 공정성이나 정의를 논의할 때, 사회적·경제적 격차 자체가 아니라 그러한 격차를 가져온 계기가 정당한 것인지를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롤스의 입장은 절대적 평등주의와 구별된다.

[나] 농사짓는 이는 전지를 갖게 하고, 짓지 않는 자는 갖지 못하게 하려면 여전제(閭田制)를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 나의 뜻이다. 여전법이란 무엇인가? 산골짜기와 독의 형세를 보아 가며 일정한 구역을 정하여 경계선을 긋고, 그 일정한 구역 안에 포함된 곳을 여(閭)라고 부르자. 여 셋을 합쳐서 이(里), 이 다섯을 합쳐서 방(坊)이라 하고, 방 다섯을 합쳐서 읍(邑)이라 하자.

여에는 여장(閭長)을 두고, 1여의 전지는 1여에 사는 사람들에게 경작하게 하며, 내 땅이니 네 땅이니 하는 경계선을 없애고, 모든 일을 여장의 명령에 따르게 한다. 사람들이 하루 일할 때마다 여장은 개인의 노동량을 빠짐없이 장부에 적어 두었다가, 추수 때 수확물을 모두 여장의 마당으로 가져오게 한 뒤 곡식을 분배한다. 먼저, 관청에 바치는 세금을 제하고, 여장의 녹봉(祿俸)을 뺀 다음, 나머지 곡식을 노동량에 따라 사람들(여민, 閭民)에게 배분한다. (중략)

노력을 많이 한 사람은 그만큼 곡식을 많이 받고, 노력이 적은 사람은 그만큼 적을 것이니, 어찌 힘써 일하지 않겠는가? 사람들이 힘써 일하면 땅에서 얻는 이익도 늘어날 것이요, 그렇게 되면 백성들의 재산이 늘고, 재산이 늘면 풍속이 순후*해지고 효제**가 자리 잡힐 것이다. 따라서 이 제도가 가장 좋은 제도라고 할 수 있다.

* 순후(淳厚): 온순하고 인정이 두터움.

** 효제(孝悌): 부모에 대한 효도와 형제에 대한 우애를 통틀어 이르는 말.

[다] 나는 집이 가난해서 말이 없기 때문에 간혹 남의 말을 빌려서 타곤 한다. 그런데 노동하고 야윈 말을 얻었을 경우에는 일이 아무리 급해도 감히 채찍을 대지 못한 채 금방이라도 쓰러지고 넘어질 것처럼 전전긍긍하기 일쑤요, 개천이나 도랑이라도 만나면 또 말에서 내리곤 한다. 그래서 후회하는 일이 거의 없다. 반면에 발굽이 높고 귀가 쫄긋하며 잘 달리는 준마를 얻었을 경우에는 의기양양하여 방자하게 채찍을 갈기기도 하고 고삐를 놓기도 하면서 언덕과 골짜기를 모두 평지로 간주한 채 매우 유쾌하게 질주하곤 한다. 그러나 간혹 위험하게 말에서 떨어지는 환란을 면하지 못한다.

아, 사람의 감정이란 것이 어찌면 이렇게까지 달라지고 뒤바뀔 수가 있단 말인가. 남의 물건을 빌려서 잠깐 동안 쓸 때에도 오히려 이와 같은데, 하물며 진짜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우야 더 말해 무얼 하겠는가.

그렇긴 하지만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 남에게 빌리지 않은 것이 또 뭐가 있다고 하겠는가. 임금은 백성으로부터 힘을 빌려서 존귀하고 부유하게 되는 것이요, 신하는 임금으로부터 권세를 빌려서 총애를 받고 귀한 신분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자식은 아버지에게서, 지어미는 지아비에게서, 비복(婢僕)은 주인에게서 각각 빌리는 것이 또한 심하고도 많은데, 대부분 자기가 본래 가지고 있는 것처럼 여기기만 할 뿐 끝내 돌이켜 보려고 하지 않는다. 이 어찌 미혹된 일이 아니겠는가.

그러다가 혹 잠깐 사이에 그동안 빌렸던 것을 돌려주는 일이 생기게 되면, 만방(萬邦)의 임금도 독부(獨夫)가 되고 백승(百乘)의 대부(大夫)도 고신(孤臣)이 되는 법인데, 더군다나 미천한 자의 경우야 더 말해 무얼 하겠는가. 맹자(孟子)가 말하기를 “오래도록 차용하고서 반환하지 않았으니, 그들이 자기의 소유가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겠는가.”라고 하였다. 내가 이 말을 접하고서 느껴지는 바가 있기에, 차마설을 지어서 그 뜻을 부연해 보았다.

[라] 델리에서 내가 머문 가옥은 많은 편의 시설이 있었다. 그 건물은 이러한 편의 시설들의 관점에서 건축되었다. 그것은 시멘트와 벽돌로 만들어졌고, 가구와 기타 편의 시설들이 잘 어울리는 상자 같은 것이었다. 우리는 우리가 평생 동안 끊임없이 수집하는 가구나 기타 물품들이 우리에게 내면적 힘을 주지는 않는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이러한 물건들은 불구자의 목발 같은 것이다. 그러한 편의물들을 우리가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그 물건들에 대한 우리의 의존도는 더 커진다. 다른 한편, 간디의 오두막에서 내가 발견한 가구는 전혀 다른 차원에 속하는 것이었다. 그 가구에 사람이 의존적으로 될 가능성은 거의 없었다. (중략)

역설적인 것은 많이 가진 사람들이 우월한 존재로 간주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불행한 일이다. 소유물에 더 많이 의존하는 사람들이 우월한 존재로 간주된다면 이상한 일이 아니겠는가? 간디의 오두막에 앉아 있는 동안 나는 이러한 뒤틀림에 대해 곰곰이 생각하면서 마음이 슬펐다. 간디가 살았던 이 오두막보다 더 큰 장소를 가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마음과 몸과 생활 방식에서 가난한 자들이다. 그들은 자연과 거의 아무런 관계를 갖지 않으며, 그들의 동료 인간들과 거의 아무런 친밀성을 갖고 있지 않다.

내가 설계가들에게 어째서 그들은 간디가 우리에게 가르쳐 준 소박한 접근 방법을 이해하지 못하는가 하고 물었을 때, 그들은 간디의 방식은 너무 어렵고 사람들이 그걸 따를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한 단순한 원리가 이해되지 않고 있다니 어떻게 된 일일까? 실제로 일반 민중은 그러한 단순성의 원리를 완전히 이해하고 있다. 이해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무엇인가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뿐이다. (중략)

간디의 이 오두막은 평범한 사람의 존엄성이 어떻게 고양될 수 있는가를 세상에 알려 주고 있다. 그것은 또한 우리가 단순성과 봉사와 진실성을 실천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행복의 상징이기도 하다.

1 제시문 [가]와 제시문 [나]를 읽고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40점]

- (1) 제시문 [가]와 제시문 [나]에서 논의하고 있는 ‘평등’과 ‘불평등’의 차이점을 비교 서술하시오. [20점]
- (2) 제시문 [나]의 저자의 관점에서 다음 <보기>의 기사에 나타난 ‘키부츠’의 변화를 평가하시오. [20점]

<보기>

이스라엘의 집단 농장 ‘키부츠’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있다. 지난달에는 1910년 세워진 이스라엘 최초의 키부츠인 ‘데가니아’가 사유화를 결정해 이스라엘 인들을 놀라게 했다. 투표 결과 회원 220명 중 85%가 사유화에 찬성표를 던졌다. 지금까지 키부츠 안에서 모든 재산은 공동 소유이며, 소속원이 번 돈은 공동 계좌로 입금해 가족 수에 따라 나누어 왔다.

사유화란 소속원들이 벌어들인 돈을 각 개인 계좌에서 스스로 관리하며, 키부츠 밖에 있는 산업체에서 일하고 받은 돈도 개별 소유할 수 있게 된다는 뜻이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270여 키부츠 중 180곳이 노동 시간에 상관없이 동일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포기했고, 25곳은 일을 잘하면 임금을 더 주는 인센티브제를 도입했다. 키부츠는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농촌 공동체로 공동 생산, 공동 분배하는 공산주의적 공동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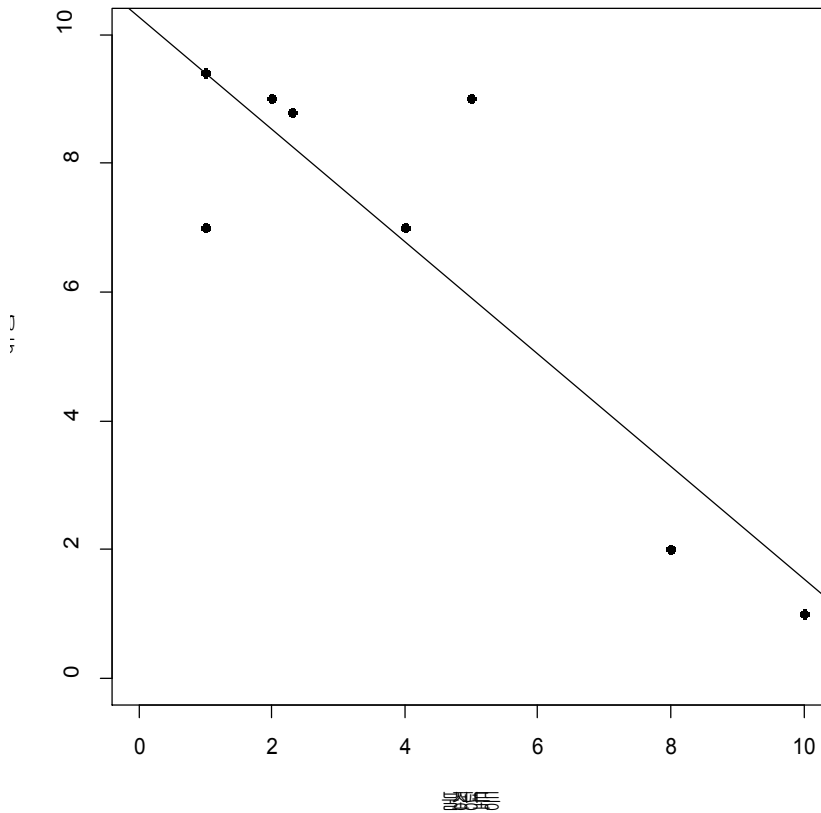
2 제시문 [다]와 [라]에 나타난 소유를 바라보는 시각을 비교하여 공통점과 차이점을 논하시오. [30점]

3 다음 표는 A국과 B국의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의 계층을 3단계로 구분하여 사회 이동률을 나타낸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아래 질문에 답하시오. [30점]

<A국>					<B국>				
		부모 세대의 사회적 계층					부모 세대의 사회적 계층		
		상	중	하			상	중	하
자녀 세대의 사회적 계층	상	15	6	4	자녀 세대의 사회적 계층	상	24	2	0
	중	4	15	11		중	2	44	0
	하	1	4	40		하	0	1	27

주: 이 표에 나타난 숫자들은 A국 및 B국에서 자녀 세대와 부모 세대 모두 40세 시점의 사회적 지위를 백분율로 나타낸 것임.

(1) 사회 계층 구조는 사회 구성원이 현재의 계층에서 다른 계층으로 수직 이동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는지 여부에 따라 개방적 계층 구조와 폐쇄적 계층 구조로 구분된다. 다음의 그림은 몇몇 국가를 대상으로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의 소득을 비교하여 소득 분포와 계층의 수직 이동성 간 상관관계를 알아본 결과이다. 위의 표를 바탕으로 A국과 B국 각각의 세대 간 사회계층 구조의 이동성을 평가하고, 아래 그림의 결과를 이용하여 A국과 B국의 소득 불평등 정도를 추론하시오. [15점]



주: x축은 숫자가 커질수록 불평등 정도가 크다는 것을 의미하며, y축은 숫자가 커질수록 사회 이동률이 높아짐을 의미한다.

(2) 사회 이동률을 나타낸 위의 표에서 A국의 경우 부모 및 자녀 세대 모두 상위, 중위, 하위 계층의 소득은 각각 5천만 원, 2천만 원, 1천만 원으로 계층 내에서 동일하다고 가정하자. 한편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 각각의 소득 불평등을 분석하는 데 있어 1인당 평균소득은 총 소득이 어떻게 분배되는지에 대하여 어떤 정보도 제공하지 않는다. 따라서 소득분배를 파악하기 위해서 중간값을 사용하는 중위소득(median income)을 사용할 수 있는데, 불평등의 정도가 증가하면 평균소득과 중위소득 간의 차이가 커지는 경향이 있다. 이와 같은 평균소득과 중위소득 간의 차이를 바탕으로 A국의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 간 소득 불평등 정도를 비교하시오. [15점]